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 9세기 三韓一統意識의 확립과 관련하여

Shilla King Gyeongmun-wang(景文王)'s Policy of Unity, and Rebuilding the Nine-storied Wooden Pagoda of the Hwang'ryong-sa temple(皇龍寺九層木塔)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in Ninth Century

저자 (Authors)	윤경진 Yoon, Kyeong-Jin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 (61), 2015.11, 453-490 (38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61), 2015.11, 453-490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9082
APA Style	윤경진 (2015).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한국사학보, (61), 453-49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6 15: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景文王의 통합 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 9세기 三韓一統意識의 확립과 관련하여 —

윤 경 진*

1. 머리말
2. 경문왕의 통합 이념과 정책
3.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과 三韓一統意識의 확립
4. 맺음말

〈국문초록〉

憲安王의 사위로서 그의 지명을 받아 즉위한 景文王은 神武王 즉위와 함께 국왕의 지위를 박탈당한 閔哀王을 복권시킴으로써 元聖王系의 통합을 도모하고 文武王의 원찰인 感恩寺 행차를 통해 武烈王系까지 포용하는 지향을 보였다. 그리고 唐의 책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재위 6년 만에 生父 啓明을 대왕으로 追封하고, 祧遷 대상이 되는 원성왕에게 烈祖 廟號를 올림으로써 不遷之主로 삼았다. 이는 원성왕의 정통 후손으로 경문왕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경문왕을 구심점으로 하는 통합의 정책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표현되었는데, 경문왕 11년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은 그 산물이었다. 개건 당시에 작성된 「刹柱本記」에는 선덕여왕 때 탑의 건립이 결국 三韓의 통합으로 귀결되었고, 그것이 현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문왕의 생부 추존은 현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2,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 2013, 「『청주운천 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史林』 45 ; 2013,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안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명분을 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연이은 모반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문왕은 문성왕대 이래 중단되어 있던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을 재개하면서 신라의 ‘통일’을 ‘一統三韓’으로 평가하고 이를 현 사회의 통합 명분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이 체제이념으로서 확립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머리말

武烈王系가 왕위를 이어가던 신라 中代는 惠恭王의 피살로 막을 내렸고, 왕위를 둘러싼 경쟁 끝에 宣德王과 元聖王이 차례로 즉위하였다. 이후 원성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지만, 원성왕의 손자 哀莊王이 숙부 彥昇(憲德王)에 의해 피살되면서 왕위 계승은 계속 굴곡을 겪게 되었다.

선덕왕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周元의 아들 憲昌은 헌덕왕 때 熊川州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중대 이후 지방에서 처음 발생한 반란으로 새 국가의 건설까지 도모한 것이었다. 헌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興德王은 체제 수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가 후계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다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悌隆과 均貞의 왕위 쟁탈전은 僖康王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이어 金明(閔哀王)이 희강왕을 자결시키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균정의 아들 祐徵(神武王)은 淸海鎮의 군사력을 빌려 왕위를 빼앗았지만, 그 뒤를 이은 文聖王 때에는 張保臯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암살되었다. 이어 신무왕의 동생 憲安王과 그의 사위 景文王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비로소 왕권의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도 잦은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신라 하대는 무력에 의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모반과 반란이 빈발하면서 국가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졌다. 흥덕왕대의 개혁 정치는 그 산물이었다. 김헌창의 난은 지방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기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분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흥덕왕은 軍鎮 설치, 지방 巡行, 골품제 정비 등을 통해 체제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이념적 측면에서

도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 표현으로 주목되는 것이 金庾信을 興武大王으로 追封한 것이다. 이것은 ‘통일’전쟁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던 김유신을 체제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이를 계기로 신라가 三韓의 정체성을 토대로 三國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三韓一統意識’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문성왕대 건립된 「聖住寺碑」에서 ‘통일’ 전의 상황을 “三韓鼎足”으로 표현하며 백제 때의 사적을 언급한 것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후 삼한일통의식은 통합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신라의 분열 이후에는 이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를 제공하였다. 고구려의 계승자로 출발한 고려가 후삼국 통일 후 삼한일통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신라에서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결과이다.

이처럼 신라 하대 중반에 출현한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경문왕 때의 일로 판단된다. 경문왕의 즉위는 그동안 왕위를 두고 갈등을 보였던 여러 세력의 화해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경문왕 또한 그간의 정치 분열을 수습하고 왕권의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바탕이 되었다.³⁾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신라가 혼란기에 빠져들면서 경문왕의 성과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쇠락기에 접어든 신라 국가를 잠시나마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동향을 보면, 우선 인사와 정치 운영에 대한 연구가 있다.⁴⁾ 경문왕-헌강왕대에 官制를 漢式으로 개정하고 近侍·文翰 기

1) 윤경진, 2015①,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史林』 52.

2) 윤경진, 2015②, 「신라 神武-文聖王대의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新羅文化』 46.

3) 경문왕가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全基雄, 1989, 「新羅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 ; 송은일, 2004, 「新羅下代 景文王系の 成立」, 『全南史學』 22 ; 황선영, 2006, 「新羅下代 景文王家의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新羅文化』 27.

4) 이기동,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확장 : 중세적 측근정치의 지향」, 『歷史學報』 77 ;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田美姬, 1989, 「新羅 景文王·憲康王대의 ‘能官人’ 登用政策과 國學」, 『東亞研究』 17 ; 전덕재,

구를 정비하였으며, 여기에 유교적 소양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왕권 강화 시도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불교 및 사상 정책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⁵⁾ 경문왕은 중앙과 지방에 걸쳐 활발한 佛事와 禪僧 招致 등을 통해 불교계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가는 동시에 儒敎와 道敎까지 아우르는 사상적 융화 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집중된 願塔 건립이나 경문왕의 중요 사업으로 꼽히는 崇福寺 중창 등에 주목한 연구가 눈에 띈다.⁶⁾ 9세기에 들어 국왕이 직접 관여하여 탑을 건립하는 예가 여럿 발견되며, 이는 경문왕대에 두드러진다. 송복사 중창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사업은 경문왕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초점은 역시 왕권 강화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경문왕의 제반 정책은 결국 체제 통합과 왕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었다.⁷⁾ 이와 함께 통합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 三韓一統意識이 전면화되었다. 경문왕 11년(885) 皇龍寺九層木塔을 改建한 것은 그 집약체로 평가된다.

주지하듯이 황룡사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여기에는 九韓으로 표상되는 신라의 천하관이 투영되어 있었다.⁸⁾ 경

2011, 「신라 경문왕·헌강왕대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추진과 그 한계」, 『東洋學』 50 ; 이기봉, 2012,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災異」, 『新羅文化』 39.

5) Vladimir Tikhonov, 1996, 「景文王의 儒·佛·仙 融化政策」, 『아시아문화』 12 ; 曹凡煥, 1999,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敎政策」, 『新羅文化』 16 ; 김지은, 2002, 「신라 경문왕의 왕권강화정책」, 『慶州史學』 21.

6) 丁元卿, 1983, 「新羅 景文王代의 願塔建立」, 『부산직할시 시립박물관연보』 5 ; 金昌謙, 1988, 「新羅景文王代 ‘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 : 王權強化策과 관련하여」, 『閔丙河停年紀念論叢』, 논총간행위원회 ; 張日圭, 2006, 「송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 192 ; 박남수, 2012,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史學研究』 108.

7) 경문왕대 연구의 구체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김창겸, 2009,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이기동정년기념논총(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출판사 참조.

8) 『三國遺事』에 인용된 安弘의 『東都成立記』에서 九韓에 비정된 나라들은 나말려초 이후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九韓은 九夷의 관념에서 가져온 것으

문왕은 퇴락하고 있던 탑을 改建하여 체제의 中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개건 당시 금동사리함에 새긴 「刹柱本記」에는 탑의 건립을 통해 三韓의 一統을 이룩했다는 인식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탑이 가지고 있던 천하 통일의 염원을 바탕으로 신라의 통합된 체제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삼한일통의식은 경문왕의 정책 과정에서 주목을 받으며 체제 이념으로 확립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신라의 마지막 중흥기인 경문왕대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한편,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 확립되어 가는 양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문왕대의 통합 정책 및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을 통해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경문왕의 통합 이념과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閔哀王 복권을 통한 범원성왕계의 통합 시도와 感恩寺 행차를 통한 무열왕계의 수용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적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元聖王에게 烈祖 廟號를 追上한 것과 경문왕 자신의 권위 강화를 위해 生父를 大王으로 追尊하게 되는 경위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황룡사구층목탑과 삼한일통의식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하고, 탑의 개건 배경과 의미를 경문왕대의 정치 과정과 연계하여 제시해 볼 것이다.

2. 경문왕의 통합 이념과 정책

1) 閔哀王 복권과 感恩寺 행차

헌덕왕대 김헌창의 반란으로 체제 분열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신라는 이를 수습할 수 있는 통합의 이념이 필요해졌다. 흥덕왕대 金庾信을 興武大

로 신라가 자신을 三韓의 하나로 간주하는 이념보다 선행한다. 이 점에서 九韓의 범주 자체는 신라 중고 말기의 것으로 파악되며, 후대에 이에 상응하는 國名을 비정해 넣은 것으로 이해된다(윤경진, 2014,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王으로 추봉한 것은 그 일환이었다. 곧이어 신무왕-문성왕의 즉위 과정에 무열왕의 후손인 金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열왕계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 선대인 무열왕과 문무왕의 공업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라가 三韓을 一統한 국가라는 이념, 곧 삼한일통의식이 사회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것은 삼국에 선행한 역사적 경험으로서 三韓을 자신과 고구려·백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신라가 이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자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한일통의식은 구성원의 역사적 동질성과 통합의 당위성을 보증하는 이념이 되었다.

이후 신라 왕실은 삼한일통의식을 적극 표방하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했는데, 이는 경문왕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문왕은 희강왕의 손자이며 헌안왕의 사위이다. 문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헌안왕이 아들 없이 죽으면서 그를 후계자로 지명함에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⁹⁾

경문왕은 흥덕왕 사후 왕위 경쟁의 한 축이었던 제룡(희강왕)의 후손이므로 그 상대였던 신무왕 계열과 대립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예영계에 속하거나 희강왕이 인검계의 민애왕에게 밀려 자살하고 신무왕이 민애왕을 제거한 만큼, 두 계열이 정치적으로 결합할 여지는 충분하였다. 앞서 신무왕의 딸과 희강왕의 아들인 啓明이 결혼하였고, 그 소생이 바로 膺廉(경문왕)인 것으로 되어 있다.¹⁰⁾ 그리고 헌안왕은 응림을 사위로 삼음으로써 실제 두 계열은 거둬진 혼인으로 결속이 강화되고 있었다.¹¹⁾

경문왕의 즉위는 이전에 있었던 왕위쟁탈전을 종식하고 새로운 통합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맞추어 경문왕은 여러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한편,

9) 헌안왕의 遺詔에 대해서는 당초 그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전례를 이용하여 딸을 여왕으로 삼으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사위를 지명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황선영, 2006, 앞의 논문, 28쪽).

10)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으며, 『삼국유사』 王曆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11) 경문왕의 즉위가 예영계의 왕위계승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보면서도 그 이면에 균정계에서 헌정계로의 교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전기용, 1989, 앞의 논문, 8쪽). 그러나 경문왕 즉위에 대해서는 균정계와 헌정계의 교체보다는 양자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민애왕의 복권과 무열왕계의 포용이라는 행보를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 중 전자는 신무왕의 공격으로 피살되고 국왕으로서 위상도 박탈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검계의 민애왕을 복권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閔哀王石塔舍利盒記』는 咸通 4년, 곧 경문왕 3년(863)에 작성된 것으로서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國王奉爲敏哀大王追崇福業造石塔記¹²⁾

위의 내용은 국왕, 곧 경문왕이 敏哀王(閔哀王)의 追崇과 福業을 위해 석탑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追崇’이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통상 추송은 사후에 그 지위를 높여준다는 의미로, 국왕이 아닌 사람을 국왕으로 올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¹³⁾ 그리고 福業은 죽은 사람에게 명복을 비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문왕이 민애왕에 대해 ‘추송’의 조치를 행한 내용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신무왕(우징)이 민애왕을 축출할 때 내세운 논리가 주목된다. 우징은 청해진의 弓福(張保臯)에게 의탁하며 군사 지원을 청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金明은 임금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弑君自立], 利弘은 君父를 함부로 죽였으니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將軍의 군대에 의탁하여 君父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¹⁴⁾

위에서 우징은 민애왕에 대해 ‘王’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즉위를 ‘弑君自立’으로 규정하였다.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곧 김명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¹⁵⁾

12)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閔哀王石塔舍利盒記.

13) 『삼국사기』에는 국왕이 아니었던 선조를 사후에 국왕으로 올릴 때 주로 ‘追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민애왕의 경우에는 국왕으로 재위했기 때문에 이들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14)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閔哀王 원년 2월 “金明弑君自立 利弘枉殺君父 不可共戴天也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

15) 후일 명에서는 초기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네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

우징은 아버지 균정이 제릉과 왕위를 놓고 싸우다 피살되었음에도 제릉의 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균정은 흥덕왕 말년 上大等으로서 계승권을 부여받은 것에서, 제릉은 예영의 長孫으로서 각각 즉위의 명분이 있었다.¹⁶⁾ 이 때문에 경쟁에서 패배한 우징은 희강왕의 즉위는 인정하고 있었다. 청해진에 의탁한 상황에서 우징은 희강왕에 대한 도전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위의 언급에서도 희강왕을 君, 또는 君父로 지칭하고 있어 그가 희강왕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런데 우징은 민애왕(김명)이 즉위하자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가 청해진의 군사력을 빌어 복수에 나선 대상은 민애왕이었다. 반란군이 왕경을 점령하고 민애왕이 병사에게 피살되었을 때, 金陽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본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인데 지금 괴수가 죽임을 당하였다. 衣冠과 士女, 百姓은 각기 편안히 지내며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¹⁸⁾

위의 발언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擧兵의 명분을 원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민애왕이 균정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희강왕을 건너뛰고 민애왕에 대해 균정 피살의 책임을 묻고 제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김양의 발언은 민애왕이 희강왕을 죽음에 몰아넣은 것을 지목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민애왕을 괴수로 지목한 것 또한 그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명분에 비추어 신무왕 즉위 후 민애왕은 폐위되어 국왕의 지위

에 올랐다 하여 그의 즉위를 ‘弑君自立’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이성계가 李仁任의 아들이라는 기록과 더불어 조선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은 이른바 宗系辨誣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계변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金暲綠, 2006, 「朝鮮初期 宗系辨誣의 展開樣相과 對明關係」, 『國史館論叢』 108 참조.

16) 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7~8쪽.

17) 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6~11쪽.

18)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陽 “本爲報讎 今渠魁就戮 衣冠士女百姓 宜各安居 勿妄動”

를 박탈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왕으로서 정식 장례나 능침도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문성왕과 헌안왕이 즉위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경문왕이 동왕 3년 민애왕을 위해 탑을 세우고 ‘추송’을 말한 것은 곧 그를 국왕으로 복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국왕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민애왕이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추송과 복업을 위한 석탑을 조성하는 것은 앞서 국왕에 합당한 의례가 실행되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피살된 후 군신이 禮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문왕 때 조치에 따라 소급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애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閔哀(敏哀)’라는 시호도 그를 弑君의 역적으로 간주한 신무왕 때의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경문왕 때 비로소 올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민애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왕위 쟁탈전을 해소하고 왕통에서 배제된 인검계를 포용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었다.¹⁹⁾ 그리고 민애왕의 핵심적 측근이었던 金昕도 이 때 복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흔은 신무왕 정권 수립의 공신인 金陽의 從父兄이지만 김양과는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헌덕왕 때 김현창 부자의 반란 후 무열왕계를 포섭하기 위해 발탁된 전력으로 인해 헌덕왕의 조카인 김명의 편에 섰다. 김흔은 민애왕 때 相國의 지위에 올랐으나 청해진의 군대에 맞섰다가 패배한 후 소백산에 은거하였고, 문성왕 11년(849) 金式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²⁰⁾

그런데 경문왕 때 민애왕이 국왕으로 복권된 만큼 김흔도 복권되었을 것이다. 최치원이 찬술한 「성주사낭혜화상비」에 김흔은 王子 昕으로 나오며

19) 경문왕의 민애대왕석탑 건립은 인검계와의 정치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黃壽永, 1969,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 84쪽 ; 金昌謙, 1988, 앞의 논문, 69~70쪽). 이에 대해 석탑을 건립한 곳이 桐華寺라는 데 주목하여 당시 유행하던 미륵신상을 수용하는 동시에 그곳에 주석하고 있던 心智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曹凡煥, 1999, 앞의 논문, 3~4쪽). 그런데 당시 조치의 본령은 탑의 건립보다 민애왕의 복권에 있었으며, 이것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 문경현, 2000, 「神武王의 등장과 金昕」, 『趙恒來停年紀念論叢』 아세아문화사, 417~427쪽 ; 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12~20쪽

성주사 창건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비문이 찬술된 진성여왕대 이미 복권된 상태로서 그의 행적을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양 열전에 부록된 그의 전기도 복권 후에 작성됨으로써 부정적 서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이처럼 경문왕의 행보는 기존의 여러 세력을 아우름으로써 권력 기반의 확대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지향은 원성왕계에 국한되지 않고 무열왕계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미 문성왕대 무열왕의 후손인 金陽의 활동을 통해 하대 왕실과 무열왕계가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경문왕은 통합의 표상으로서 文武王 사적의 환기를 통해 이러한 지향을 구체화하였다. 그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경문왕 4년(864)의 感恩寺 행차이다.

王이 感恩寺에 행차하여 바다에 望祭를 지냈다.²²⁾

감은사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바다에 능을 만들었다는 大王巖 전승과 연결되어 있다.

『삼국사기』 문무왕대 기사 말미에는 문무왕 사후 군신들이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의 큰 돌 위에 능을 만들었고 이를 大王石이라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²³⁾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이와 관련하여 문무왕이 죽은 뒤 護國大龍이 되고자 했다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萬波息笛 설화에도 문무왕이 海龍이 되어 三韓을 鎮護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전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²⁴⁾ 그 초점은 문무왕을 護國의 표

21) 열전에서 심흔의 사망 일자는 8월 27일로, 9월의 모반 사건보다 앞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된 사적을 지우기 위해 고친 것으로 이해된다(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18~20쪽).

22)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4년 2월 “王幸感恩寺望海”

2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21년7월 “羣臣以遺言葬東海口大石上 俗傳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24) 이에 대해서는 金庾信을 33天의 하나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같은 내용이 보이는 태종 시호 논변 기사와 함께 김유신의 후손 長淸이 찬술한 『金庾信行錄』에서 채록되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윤경진, 2015①, 앞의 논문, 23~30쪽). 이에

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문무왕의 원찰로서 감은사의 존재를 감안할 때, 경문왕의 행보가 이러한 문무왕의 공업에 대한 전승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문왕대 이전에도 국왕이 동해로 와서 望祭를 지낸 기사가 두 차례 보인다.

① (미추이사금) 동쪽으로 순행하여 망제를 지냈다.²⁵⁾

② (혜공왕) 感恩寺에 행차하여 망제를 지냈다²⁶⁾

신라 초기 미추이사금은 동쪽으로 순행하여 망제를 지냈다. 이것은 신라가 경주 지역에서 벗어나 동해안 방면으로 강역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신라의 영토에 대한 인식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²⁷⁾

이후 국왕의 동해 망제는 혜공왕 때 다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는 感恩寺 행차에 수반되었다. 이것은 감은사가 표상하는 문무왕의 공업이 망제로 표현되는 영토 인식과 연계되는 것을 시사한다. 미추이사금의 망제가 동해까지 영토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는 조치라면, 혜공왕의 동해 망제는 강역을 크게 넓힌 문무왕의 공업에 대한 환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雜誌 祭祀조를 보면, 혜공왕대 五廟를 정비하고 金氏의 시조 味鄒王과 더불어 太宗王(무열왕)과 문무왕을 不遷之主로 삼고 親廟 2대와 묶어 五廟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⁸⁾ 이 조치의 핵심은 문무왕을 불천지주로 삼는 데 있었다.

따라서 혜공왕의 감은사 행차와 동해 망제는 오묘 정비와도 연계된 것

따르면 이 전승은 하대 초기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3년 2월 “東巡幸 望海”

26)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12년 정월 “幸感恩寺 望海”

27) 고구려의 경우에도 문자명왕 때 남방 순행과 더불어 望海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4년 7월 “南巡狩 望海而還”). 이 역시 확장된 영토에 대한 인식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28) 혜공왕대의 오묘 개정은 무열왕계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李文基,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 蔡美夏, 2000,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的 改定」, 『韓國史研究』 108.

으로, 문무왕의 위상과 공업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해공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⁹⁾ 문무왕이 海龍이 되어 三韓을 鎮護한다는 大王岩 전승과 守成의 보배를 전해주었다는 萬波息笛 설화는 이러한 평가를 배경으로 생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문왕의 감은사 행차와 동해 망제는 해공왕의 전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로서 그의 지명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초기 권력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崇福寺碑」에 경문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有集鳥之苑”이라고 한 구문은 경문왕의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⁰⁾ 경문왕은 동왕 3년(863) 11월 왕비 寧花夫人의 동생까지 들여 妃로 삼았는데, 이는 헌안왕의 후계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조치로 이해된다.³¹⁾ 그리고 이듬해 정월 감은사에 행차하였다.

이 시점에서 그가 감은사에 행차하여 문무왕의 사적을 새기는 것은 무열왕계까지 포괄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²⁾ 앞서 민애왕 복권을 통해 범원성왕계의 결집을 도모한 것처럼, 이번에는 감은사 행차를 통해 무열왕계까지 아우르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민애왕은

29) 五廟 정비와 관제 복구, 感恩寺 행차 등을 포함한 해공왕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30) 崔柄憲, 1978,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 3, 491~494쪽. 경문왕이 즉위 후 崇福寺를 중창하고 敏哀大王石塔을 건립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창겸, 1988, 앞의 논문, 53~58쪽).

31) 연구자에 따라서는 경문왕의 즉위 배경으로서 아버지 계명의 세력 기반과 응령 본인이 花郎으로서 구축하였던 기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김창겸, 1988, 앞의 논문 ; 전기용, 1989, 앞의 논문 ; 송은일, 2004, 앞의 논문 ; 이기봉, 2012, 앞의 논문).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헌안왕의 주목을 받아 사위가 되는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경문왕 즉위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술하듯이 경문왕이 동왕 6년에 비로소 생부 계명을 대왕으로 追尊한 것은 그의 세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헌안왕과의 연계가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32) 이기봉은 경문왕의 감은사 행차가 신라의 국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앞서 송복사 중창과 민애대왕석탑 건립을 통해 범원성왕계 결집을 도모한 것의 연장으로 보았다(이기봉, 2012, 앞의 논문, 100~101쪽). 범원성왕계의 결집에서 확장된 통합은 곧 무열왕계의 포섭으로 나타날 것임은 물론이다.

신무왕 정권 및 무열왕계의 복권을 이끈 金陽과 대척점에 있었다. 따라서 민애왕 복권은 자칫 무열왕계의 정치적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었다. 이에 경문왕은 문무왕 사적을 매개로 무열왕계를 포섭하는 지향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경문왕대에 문무왕의 사적에 다시 주목한 것은 앞서 문성왕대 무열왕의 위상이 새롭게 인식되는 것의 연장에 있다. 그리고 무열왕과 문무왕에 대한 인식 강화는 이들의 공업으로 제시된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현 체제의 통합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곧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으로 귀결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元聖王 廟號(烈祖) 追上과 生父 追尊

경문왕은 인겸계를 포괄하는 범원성왕계의 결집과 더불어 무열왕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도모하였다. 그 중심에는 경문왕 자신이 자리하는 만큼,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방안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문왕이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는 방안으로 실행한 대표적인 조치는 하대 왕실의 출발인 원성왕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는데, 원성왕의 願刹로서 崇福寺를 중창하고 그를 不遷之主로 삼은 것은 그 표현이었다.³³⁾

崔致遠이 찬술한 「崇福寺碑」에는 이 절의 연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金城의 남쪽, 해를 볼 수 있는 기슭에 崇福이라는 절이 있는데, 先朝(경문왕)께서 왕위를 이은 첫 해에 받들어 烈祖 元聖大王의 園陵에 追福하는 곳으로 건립한 곳이다. 옛 절의 연원을 고찰하고 새 절이 다시 이루어진 것을 살피니 옛날 波珍滄 金元良이란 사람은 炤文王后(원성왕의 모후)의 元舅이자 肅貞王

33) 원성왕의 원찰인 崇福寺의 중창이 결국 경문왕의 왕위계승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실의 여러 세력을 같은 원성왕 후손이라는 혈연의식을 매개로 연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문왕의 정치적 의도는 崇福寺 중창보다 뒤이어 이루어진 烈祖 廟號 追上에 본령이 있었다고 본다.

后(원성왕의 비)의 外祖이다.³⁴⁾

崇福寺는 당초 金元良이 창건한 것을 先朝 初載, 곧 경문왕 원년(861)에 중창한 것이며,³⁵⁾ 원성왕의 능을 수호하고 명복을 비는 곳으로 삼은 사찰이다. 송복사의 본래 이름은 鵠寺인데, 中和 乙巳, 곧 헌강왕 11년(885)에 大崇福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목되는 것은 경문왕이 즉위 후 곧바로 鵠寺를 원성왕의 원찰로 삼았다는 점이다. 비문에는 꿈에 원성왕을 만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원성왕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너의 先祖이니 佛像을 세워 나의 陵域을 꾸미고 보호하고자 한다. 조심하고 경건하게 하되 경영을 서두르지 말라. 부처의 덕과 내 힘이 네 몸을 감쌀 것이니 中道를 지키면 天祿이 영원할 것이다.³⁶⁾

위에서 원성왕은 자신이 조상임을 밝히고 불상을 지어 능을 수호하면 부처의 덕과 자신의 힘으로 왕을 보호하고 왕업을 무궁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곧 곡사를 중창하여 원성왕의 원찰로 삼는 것이 원성왕의 뜻임을 표방한 것으로, 그를 매개로 한 경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 요체는 하대 왕실의 출발인 원성왕의 권위를 매개로 자신의 왕통을 확증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정국의 안정을 끌어내는 데 있었다.³⁷⁾

34)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崇福寺碑 “金城之离 日觀之麓 有伽藍號崇福者 乃先朝嗣位之初載 奉爲烈祖元聖大王園陵追福之所修建也 粵若稽古寺之濫觴 審新刹之覆簣 則昔波珍淪金元良者 炤文王后之元舅 肅貞王后之外祖也”

35) 송복사 중창 시점을 경문왕 2년으로 조정하여 보는 견해도 있다(장일규, 2006, 앞의 논문, 43쪽, 주 24)).

36)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崇福寺碑 “余而祖也 而欲建佛像 飾護予陵域 小心翼翼 經始勿亟 佛之德 予之力 庇爾躬 允執厥中 天祿永終”

37) 경문왕은 동왕 2년 神宮에 親祭하였는데, 당시 그가 신궁보다 격이 높아져 있던 五廟에 제사하지 않고 신궁에 제사한 것을 송복사 중창과 연결하여 분열된 진골 귀족들을 범원성왕계로 회유·포섭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이기봉, 2012, 앞의 논문, 98쪽). 그러나 앞서 흥덕왕도 즉위 2년에 신궁에 친제하였고, 동왕 8년에 始祖廟에 제사하였다. 경문왕도 동왕 6년 생부 계명의 大王 追尊에

이러한 속성은 원성왕의 ‘烈祖’라는 廟號에서 잘 드러난다. 烈祖는 공업이 큰 선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묘호로 사용되면 ‘中興主’를 표상한다. 조선 仁祖의 본래 묘호가 烈祖였던 것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³⁸⁾ 『삼국사기』에 원성왕의 묘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칭호가 묘호인지 아니면 공업이 큰 선조라는 의미로 쓴 것인지 단정은 어렵지만, “烈祖元聖大王”이라는 칭호 구성으로 볼 때 묘호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성왕의 열조 묘호는 중흥주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무열왕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왕계의 출발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앞서 무열왕에게 太宗 廟號(諡號)를 올려 太祖의 정통 후계자임을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³⁹⁾

그렇다면 원성왕에게 烈祖 묘호를 올린 시점은 언제일까. 애장왕 때 불천지주였던 태종왕(무열왕)과 문무왕을 別廟로 옮기고 始祖와 高祖 明德大王, 曾祖 元聖大王, 皇祖 惠忠大王(仁謙), 皇考 昭聖大王으로 五廟를 구성하였는데, 원성왕에게 따로 열조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묘호를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성왕의 묘호는 祧遷해야 하는 시점에 불천지주로 삼기 위해 올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烈祖는 ‘祖’ 칭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불천지주가 된다. 魏 明帝 景初 원년에 미리 황제의 묘호를 烈祖로 정하고 太祖·高祖와 함께 불천지주로 삼도록 한 것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⁴⁰⁾ 그런데 문성왕에 대해 원성왕은 고조가 되어 조천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다. 조천이 처음 발생하는 것은 경문왕이 즉위하면서이다.

경문왕은 희강왕의 손자이고, 희강왕은 원성왕의 증손이다. 불천지주인 시조를 제외하면 현 국왕의 4대조까지 五廟를 구성하게 되는데,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원성왕이 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경문왕의 선조 중 국왕이 아닌 증조부 憲政은 희강왕 때 翬成大王으로 추봉되었고,⁴¹⁾ 고

따라 종묘에 친제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면, 경문왕의 신궁 제사를 숭복사 중창과 연결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38) 『孝宗實錄』 권1, 孝宗 즉위년 5월 15일(癸酉).

39) 윤경진, 2013, 앞의 논문.

40) 『晉書』 권28, 志18 五行 中, “景初元年 有司奏 帝爲烈祖 與太祖高祖 并爲不毀之廟 從之”

조부인 禮英은 신무왕 때 惠康大王으로 추봉되었다.⁴²⁾ 따라서 경문왕을 기준으로 오묘를 구성할 경우 대수상 원성왕이 조천할 차례가 된다.

경문왕은 동왕 6년(866) 정월 생부인 啓明을 懿恭大王으로 추존하고 태자도 책봉하였다.⁴³⁾ 이에 따라 의공대왕의 부묘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조천 대상이 되는 원성왕에게 열조 묘호를 올려 불천지주로 삼은 것이다. 계명이 국왕으로 추봉되어 부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성왕의 조천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공대왕의 부묘로 원성왕이 조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⁴⁴⁾ 실질적인 왕계의 출발이 되고 烈祖 칭호를 받은 원성왕이 조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통상 국왕 즉위 직후 생부에 대한 추존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경문왕 6년(86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존을 행했다는 점이다. 경문왕 5년(865) 4월에 唐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추존 조치가 실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즉위 후 곧바로 생부를 추존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계명이 前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⁵⁾ 그러나 왕조 국가에서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할 때 그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계명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응림이 즉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⁴⁶⁾ 무엇보다 계명이 살아 있었다

4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僖康王 2년 정월 “追封考爲翌成大王”

4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神武王 원년 “追尊祖伊飡禮英〈一云孝眞〉爲惠康大王 考爲成德大王”

4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6년 정월 “封王考爲懿恭大王 母朴氏光和夫人爲光懿王太后 夫人金氏爲文懿王妃 立王子暲爲王太子”

44) 채미하, 2008, 「오묘제와 하대 왕권」, 『신라의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23쪽 ; 박남수, 2012, 앞의 논문, 52쪽 ; 이기봉, 2012, 앞의 논문, 104쪽.

45) 김창겸, 1988, 앞의 논문, 59쪽. 김창겸은 뒤에 당의 책봉을 계기로 계명을 추봉한 것으로 보면서 계명이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김창겸, 2009, 앞의 논문, 864쪽).

46) 현재 다수의 연구자가 膺廉의 즉위에 啓明이 직접 개입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김창겸, 1988, 앞의 논문 ; 송은일, 2004, 앞의 논문). 이는 계명이 대왕 추존 前년에 사망했다고 보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추존 시점이 계명의 사망 시

면 경문왕이 헌안왕의 次女까지 妃로 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들이 없던 헌안왕이 경문왕을 사위로 들여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점에서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경문왕은 자신의 힘이나 군신의 추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헌안왕이 遺詔에서 여왕으로 이어갈 수 없음을 천명하고 응림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이 경우 경문왕은 사실상 헌안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전승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헌안왕은 國仙이던 응림(경문왕)의 자질을 확인하고 사위로 삼고자 했는데 두 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모는 미색이 있는 둘째를 추천하였으나 뒤에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範教師의 조언으로 박색인 첫째를 택하였다. 경문왕 즉위 후 확인된 세 가지 좋은 일의 첫째는 바로 장녀를 취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⁴⁷⁾

이것은 당초 응림을 사위로 들인 것 자체가 후계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왕은 안된다는 헌안왕의 유조와 응림이 첫째 딸과 결혼하는 상황은 결국 경문왕이 헌안왕의 실질적인 ‘아들(長子)’로서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문왕 즉위 후 오묘는 시조와 원성왕, 예영, 균정, 헌안왕으로 구성된다. 앞서 문성왕 즉위 후의 오묘는 시조와 원성왕, 예영, 균정, 신무왕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안왕이 즉위한 후 문성왕은 헌안왕보다 아래 항렬이기 때문에 五廟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경문왕이 즉위한 후 신무왕을 대신해 헌안왕이 부모되었던 것이다.⁴⁸⁾

그런데 경문왕은 동왕 5년 唐의 책봉을 계기로 이듬해 생부를 추존함으로써 자신의 왕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당시 태자 책봉이 함께 이루어진 것에서 그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을 실질적인 ‘아들’로 삼

점을 직접 보증할 수는 없다. 조선말 고종의 즉위는 생부 興善君의 존재가 큰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섭정하였다. 계명이 살아 있었다면 그의 섭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47) 『三國遺事』 권2, 紀異 四十八景文大王.

48) 형제를 같이 부모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헌안왕이 부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박남수, 2012, 앞의 논문, 53쪽), 親廟로 구성되는 원칙에서 볼 때 신무왕이 탈락하고 헌안왕이 부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 왕위를 계승시킨 헌안왕의 조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컸다. 따라서 국왕으로서 입지가 확보되지 않은 즉위 직후에 추존을 도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경문왕의 생부 추존에 따라 五廟는 그가 헌안왕의 후계자일 때와 다른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균정과 헌안왕이 배제되고 대신 헌정과 희강왕, 그리고 계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대수가 하나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성왕이 조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성왕은 하대 왕실의 출발이 되므로 조천이 곤란하였다. 이에 경문왕은 그에게 烈祖 묘호를 올려 불천지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예영이 조천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경문왕이 생부 계명을 국왕으로 추존하고 원성왕을 불천지주로 삼은 것은 원성왕의 직계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조치였다. 이것은 헌정계 중심으로 왕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정계와 균정계의 대립을 재현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⁴⁹⁾ 이미 헌안왕의 사위로서 정치적 결합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앞서 민애왕 추숭을 통해 인검계까지 포용하고 있었던 만큼 왕계의 조정이 정치적 연합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원성왕의 불천지주 설정과 맞물려 범원성왕계를 아우르는 중심으로서 경문왕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으로서 국왕의 정통성과 권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문왕의 통합 정책은 국왕의 권위 강화라는 토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3.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과 三韓一統意識의 확립

1) 皇龍寺九層木塔과 三韓一統意識

통합을 위한 경문왕의 지향은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정치 지형의 수립과 더불어 통합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이념적 사업으로도 구현되었다. 중앙 정계의 통합에서 확장되어 국가 내지 체제의 통합까지 제시하는 것이

49) 경문왕 8년 김예의 반란은 이러한 요소가 드러난 것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바탕에서 국가의 중심으로서 국왕의 입지는 더 부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주목되는 것이 경문왕 11년(871)의 황룡사구층목탑 改建이다. 주지하듯이 황룡사는 眞興王 때 창건되었으며, 善德女王 때 9층의 목탑을 세웠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 月城의 동쪽에 新宮을 지었다가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나자 궁궐을 佛寺로 개조하고 이름을 黃龍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⁵⁰⁾ 이 전승은 절의 창건 의의를 황룡의 출현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護國의 이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⁵¹⁾ 구층목탑의 건립 또한 그러한 이념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²⁾

한편 『삼국유사』에는 탑의 건립을 주도한 慈藏의 활동과 관련된 탑의 창건 연기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유학하던 慈藏은 文殊菩薩을 인견하고 신라 국왕이 天竺의 刹利種王이라는 말을 들은 데 이어 中國 太和池 가에서 神人을 만나 조속히 귀국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이때 신인은 신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자장의 말에 대해 여왕이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돌아가 9층탑을 세우면 九韓이 來貢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⁵³⁾

선덕여왕이 탑을 건립한 것은 백제의 침공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크게 위축되어 있던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장의 연기 설화에 따르면 신인을 만나기에 앞서 문수보살로부터 신라 국왕이 刹利種王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선덕여왕의 혈통적 신성성과 탑

50) 『三國史記』 권4, 眞興王 14년 2월 “王命所司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51) 황룡사와 호국이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申東河, 2001, 「新羅佛國寺 思想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2 참조.

52) 역사학적 맥락에서 황룡사구층목탑을 전론으로 다룬 논고로는 다음이 있다. 金相鉉, 1992, 「黃龍寺九層塔考」, 『張忠植華甲紀念論叢(역사학편)』, 논총간행위원회; 박순교, 2002, 「皇龍寺九層塔의 歷史的 虛實」, 『清溪史學』 16·17; 최희준, 2011,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처」, 『韓國學論叢』 36; 허인욱, 2014,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在 검토」, 『史學研究』 113.

53) 『三國遺事』 권3, 塔像 黃龍寺九層塔.

의 건립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 것을 보여준다.

한편 탑의 건립을 충고한 신인이 자신의 아들이 황룡사의 護國龍이라고 설명한 것은 곧 황룡사를 세우게 되는 배경 전승과 연결되어 있어 양자가 같은 바탕에서 생성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운 것이라는 점에서 이곳에 탑을 세우는 것은 선덕여왕이 진흥왕의 정통 계승자임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진흥왕의 태자인 銅輪은 즉위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동생 金倫(眞智王)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지왕은 國人들에 의해 폐위되고 동륜태자의 아들 眞平王이 즉위하였다. 진평왕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가 선덕여왕이다.

설화에서 여왕이라 덕은 있으되 위엄이 없다고 한 것은 선덕여왕이 국정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선덕여왕은 이 어려움을 혈통의 신성성을 내세워 타개하려고 하였는데, 자장이 말한 찰리종왕은 그 표현이었다. 이 계보는 진흥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진평왕계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구층목탑의 건립은 바로 진흥왕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적 신성성을 天下觀으로 표현한 것이다. 神聖帝王으로서 선덕여왕이 주재하는 천하는 九韓의 來貢으로 표상된다. 九韓은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가 본격 수립되기 전에 九夷의 천하관에 영향을 받아 신라 중심으로 형성된 천하를 나타내고 있다.⁵⁴⁾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은 신라를 침구하는 隣賊을 제압하고 나름의 천하를 구축하는 지향을 담고 있다. 설화의 내용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결국 그러한 인적의 범주에 속하면서 신라에 來貢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에는 역사적 동질성이나 다른 부류와 구분되는 삼국만의 친연성은 설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문왕대 탑의 개건 때에는 탑의 건립 의미 내지 효과와 관련하여 삼한일통의식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개건 당시 사리함에 새긴 명문, 이른바 「찰주본기」에는 탑의 건립과 개건의 전말이 정리되어 있다. 이 역시 慈藏의 유학과 귀국 과정에 탑을 짓게 되는 사연이 설명되어 있다.

54) 윤경진, 2014, 앞의 논문, 117~125쪽.

① 國王(선덕여왕) 12년 癸卯年에 本國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南山 圓香禪師에게 인사하니 禪師가 이르기를, “내가 觀心法으로 그대의 나라를 보니 皇龍寺에 9층의 탑을 세우면 海東諸國이 모두 너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니 慈藏이 그 말을 품고 돌아왔다. 이를 보고하니 (왕이) 監君 伊干 龍樹와 大匠 百濟 阿非 등에게 명하여 小匠 200인을 이끌고 이 탑을 세우게 하였다.⁵⁵⁾

② 그(선덕여왕) 14년 乙巳에 처음 짓기 시작하여 4월에 □□하고, 刹柱를 세웠다. 이듬해 공역을 마치니 鐵盤 이상의 높이가 7보이고 이하의 높이가 40보 3척이다. 과연 三韓을 합쳐 □□를 이루고 君臣이 安樂하니 지금까지 그에 힘입고 있다.⁵⁶⁾

①은 자장이 탑을 건립하게 되는 배경으로 圓香禪師의 조언을 인용한 것이다. 자장에게 충고를 전한 인물이 연기설화에는 神人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圓香禪師로 바뀌어 있다. 신비적 설화를 설득력있는 상황으로 대체한 것이다.⁵⁷⁾

다음에 탑이 건립이 가져올 효과로 九韓의 來貢이 海東諸國의 항복으로 바뀌어 있다. 海東은 중국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 동쪽 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려에서는 나름의 천하를 구성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⁵⁸⁾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을 배제하거나 복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九韓의 천하관과 구분된다. 이미 당에 대한 사대 외교를 전개하던 신라에서 구한의 천하관을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海東으로 대체한 것이다.

②는 탑의 건립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55)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國王之十二年 癸卯歲 欲歸本國 頂辭南山圓香禪師 禪師謂曰 吾以觀心 觀公之國 皇龍寺建九層 率塔波海東諸國 渾降汝國 慈藏持語而還 以聞 乃命監君伊干龍樹 大匠[百]濟阿[非]等 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56)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 四月□□ 立刹柱 明年乃畢功 鐵盤已上 高[七][步] 已下高卅步三尺 果合三韓 以爲□□ 君臣安樂”

57) 『三國遺事』에서는 神人에 대해 “寺中記云 於終南山圓香禪師處 受建塔因由”라고 註記하였다. 원향선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神人을 대체하여 설정한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58)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秋明燁,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果合三韓”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서 문성왕 때 건립된 「성주사비」에는 삼국 병립기를 “三韓鼎足”으로 서술하고 신라 자신을 辰韓으로 표현하고 있어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보여준다.⁵⁹⁾ 이에 대해 「찰주본기」는 탐의 건립 배경으로 제시된 海東諸國의 항복이 현실화된 내용을 삼한의 통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곧 천하관과 역사계승의식을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海東은 당초 중국이 자신의 동쪽 지역 및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부류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三國志』 東夷傳에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⁶⁰⁾라고 하여 海東이 東夷로 범칭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공간적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정립기에는 삼국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당 고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보낸 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海東 三國은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되었고, 경계를 나란히 하며 땅이 개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요즘에 와서는 마침내 혐의와 간격이 생겨 전쟁이 번갈아 일어나 편안한 해가 거의 없어 三韓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⁶¹⁾

위의 언급에는 “海東三國”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것은 이전 시기부터 ‘海東’으로 설정되어 있던 공간이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세 나라로 정리되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開基日久”라 하여 그 역사적 연원이 오래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원이 바로 三韓이다. 이에 삼국의 주민을 “三韓之氓”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공간 개념으로서 海東과 역사의식으로서 三韓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에 인용된 唐의 『贖高僧傳』의 圓光 항목에서 이와 비슷한 인식 구조를 찾을 수 있다.

59) 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60) 『三國志』 권30, 魏志30 烏丸鮮卑東夷傳 夫余.

61) 『三國史記』 권18, 百濟本紀6 義慈王 11년 “海東三國 開基日久 並列疆界 地實犬牙 近代已來 遂構嫌隙 戰爭交起 略無寧歲 遂令三韓之氓 命懸刀俎”

新羅 皇隆寺의 승려 圓光은 俗姓이 朴氏이다. 본래 三韓이 있었으니 卞韓·辰韓·馬韓으로, 圓光은 곧 辰韓 사람이다. 집안이 대대로 海東에 살았다.⁶²⁾

위에서 圓光은 신라의 승려로 삼한 중 辰韓 사람이며 가문에 대대로 海東에 거주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삼한과 海東은 같은 범주가 된다. 이 중 신라는 진한에 해당하지만,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신라만 남은 상황에서 삼한과 海東은 모두 신라로 귀속된다. 신라는 海東의 실질적인 범주이자 삼한의 현실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海東諸國의 항복으로 제시되는 천하관과 三韓의 통합으로 제시되는 역사의식은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海東제국의 항복은 신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천하를 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諸國의 동질성은 상정되지 않는다. 반면 삼한일통의식은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삼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로 지배-복속의 구조가 아니라 내적인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 보이듯이 海東의 공간이 삼국을 거쳐 신라로 정리되고, 그 신라가 자신의 역사적 연원을 삼한으로 인식하게 되면, 海東의 천하관과 삼한일통의식은 밀접히 연결된다. 신라가 海東의 천하를 주재하는 상황과 삼한의 역사적 연원에 기반한 현실의 통합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신라가 자신을 海東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 정체성을 삼한으로 연결하게 되면, 삼한에서 현재의 신라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海東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海東에서 유일하게 존립한 신라는 海東의 제국을 통합한 것이 되며, 이는 그 연원으로서 삼한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관념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결국 海東의 천하관이 삼한의 정체성과 결합되면서 삼한일통의식이 확립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삼국사기』에 보이는 海東의 용례는 중국의 시각에서 제시된 것이거나 史書 편찬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신라 중대 및 하대(후삼국 분열 이전)의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경문왕대 이전의 금석문

62)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新羅皇隆寺釋圓光 俗姓朴氏 本住三韓 卞韓 辰韓馬韓 光卽辰韓人也 家世海東”

에서는 헌덕왕 5년(813) 찬술된 「斷俗寺神行禪師碑」에서 처음 海東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 ① 海東故神行禪師之碑并序
- ② 貧道生緣海東 因求法而至耳⁶³⁾

①은 비문의 서두이고, ②는 神行이 중국에서 유학하던 중 도적을 단속하고 있던 관청에 구금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내용이다. 이것은 모두 중국에 대해 신라를 가리킨 표현으로, 천하관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이후 금석문에는 신라를 해동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신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구별되는 하나의 공간적 단위를 상징케 하는 표현들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聖住寺朗慧和尚碑」에 보이는 “海東神童”과 “海東大父”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동은 신라를 가리키지만, 그 이면에는 神童과 大父를 인식하는 준거로서 중국과 구별되는 공간적 단위를 수반한다.

이것은 고려 국왕을 ‘海東天子’로 지칭한 것에서 유추된다. 천자는 천하를 주재하는 존재이므로 해동천자는 중국과 대비되는 또다른 천하를 전제하는데, 그것이 바로 海東인 것이다. 崔冲을 ‘海東孔子’로 칭한 것도 이러한 천하관의 표현이다. 따라서 같은 개념 구조를 가지는 海東神童이나 海東大父는 하나의 천하로서 해동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⁴⁾

신라가 언제부터 해동의 천하관을 수립했는지는 관련 자료가 적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에 선행하는 九韓의 천하관이 결국 여왕의 권위 약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동의 천하관 또한 국왕의

63)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斷俗寺神行禪師碑.

64) 백제 의자왕이 태자 시절 孝友로 海東曾子로 불렸다는 것 또한 이러한 천하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백제 때의 인식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적에 대해 『舊唐書』에는 “海東曾閔”, 『新唐書』에는 “海東曾子”로 적고 있어 『삼국사기』가 중국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신라 혹은 고려에서 생성된 자료를 중국 사서가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신라, 혹은 삼국 당시 백제의 천하관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논외로 한다.

권위 약화라는 현실 조건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중대는 백제 통합을 통해 국왕의 권위가 확고하였고, 이를 당과의 사대 외교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무열왕은 태조의 정통 계승자로서 태종 시호를 부여받았고, 이후 왕통은 무열왕의 후예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자신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관념적 천하관을 따로 표방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왕위계승분쟁과 모반이 반복된 하대의 국왕은 권위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선덕여왕 때처럼 관념적 천하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동의 천하관은 신라 하대의 정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나가며, 경문왕대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⁶⁵⁾ 당초 황룡사구층목탑의 건설이 九韓의 천하관을 표명함으로써 이념적 측면에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할 때, 탑의 개건 또한 동일한 맥락의 지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성여왕대 찬술된 「성주사낭혜화상비」에 보이는 관념은 경문왕 때 천명된 해동의 천하관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결국 경문왕의 황룡사구층목탑 개건은 탑의 건립이 가지고 있던 신라 중심의 천하관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중국을 하위로 보는 구한의 천하관을 대신하여 중국의 천하를 전제로 그와 구별되는 나름의 천하를 설정하는 해동의 천하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해동의 역사적 실체인 삼한에 대한 인식과 맞물리면서 삼한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역사의식으로 수렴되었다.

이처럼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에 투영된 삼한일통의식은 해동의 천하관과 연계됨으로써 현실의 정치 이념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문성왕대 무열왕계의 복권과 함께 현실 이념으로 모습을 드러낸 삼한일통의식이 경문왕대에 확립되는 것은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탑의 개건이 문성왕대에 시도되었다가 경문왕대에 완성을 보았다는 점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부분

65)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말미에는 “樹塔之後 天地開泰 三韓爲一 豈非塔之靈蔭乎”라고 한 것은 「찰주본기」의 “果合三韓”과 상통하는 인식이다. 이는 경문왕대 이후 황룡사 탑이 신라의 ‘一統三韓’을 표상하게 되면서 이것이 연기 설화의 이해에도 투영되는 것을 보여준다.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皇龍寺九層木塔 改建의 배경

「찰주본기」에는 경문왕이 황룡사구층목탑을 개건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文聖大王 때에 이르러 □□한 지 오래되어 동북쪽을 향해 기울어지니 나라에서 무너질까 염려하여 장차 改□하기로 하고 여러 재료를 모았으나 30여 년이 되도록 改構하지 못하였다.⁶⁶⁾

위에서 문성왕대에 탑이 기울어지면서 이미 탑의 改構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곧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은 문성왕대에 시작하여 경문왕이 실현한 사업으로서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이 사업이 신무왕 즉위 이후의 변화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유추케 한다.

이 때 「찰주본기」에 설명된 탑의 이념적 성격을 감안하면, 문성왕대에 탑의 개건을 도모한 것 또한 단순히 탑의 기울어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위의 명문에서 문성왕대에 개구를 도모한 것이 30여 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성왕 즉위 초에 탑의 개구를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⁷⁾

문성왕은 부왕 신무왕이 弓福과 金陽의 도움으로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하자 왕위를 물려받았다. 흥덕왕 사후 전개된 왕위쟁탈전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임을 고려할 때, 문성왕이 정계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구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⁶⁸⁾

그러나 문성왕 2년(840) 가뭄으로 겨울에 기근이 들었고,⁶⁹⁾ 이듬해 봄

66)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既于文聖大王之代 □□ 既久 向東北傾 國家恐墜 擬將改□ □致衆材 三十餘年 其未改構”

67) 허인욱, 2012, 앞의 논문, 14쪽.

68) 문성왕은 遺詔에서 “三事大夫와 百辟卿士가 左右에서 도와주어 왕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19년 9월), 이는 그의 정치 과정에 여러 세력의 통합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황선영, 2006, 앞의 논문, 5쪽).

69)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2년 “自夏四月至六月 不雨 (중략) 冬 饑”

에는 京城에 역질이 돌고 一吉滄 弘彌이 반역을 꾀했다.⁷⁰⁾ 이 때문에 탑의 개구가 중단되었고 당대에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경문왕 11년(871)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탑의 개건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문왕 8년(868)에는 황룡사 탑에 벼락이 떨어졌는데,⁷¹⁾ 이것을 계기로 다시 탑의 개건 논의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정계의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⁷²⁾

전술한 바와 같이 경문왕은 동왕 6년(866) 정월 생부인 啓明을 懿恭大王으로 추존하고 太子도 책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왕이 위상을 과시하였다.⁷³⁾ 이것은 헌안왕의 실질적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명분을 과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문왕은 원성왕의 정통 계승자로서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지향을 가졌지만, 일각에서는 균정계의 배제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동년 10월 伊滄 允興 형제가 모반했다가 복주되었다.⁷⁴⁾ 윤흥에 대해서는 김헌창의 반란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允膺과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⁷⁵⁾ 양자를 별개로 보면서 윤흥을 김양의 庶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⁷⁶⁾

전자의 경우 윤흥 형제가 叔興과 季興인 것을 보면, ‘興’과 ‘膺’의 통용이나 이표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윤흥과 윤흥은 별개로 보는 것

70)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3년 “春 京都疾疫 一吉滄弘彌謀叛 事發 逃入海島 捕之不獲”

71)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8년 6월 “震皇龍寺塔”

72) 조범환은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이 당시 불교계, 특히 화엄종의 개편을 도모한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다(조범환, 1999, 앞의 논문, 34~36쪽). 이는 경문왕과 황룡사와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지만, 목탑의 개건을 황룡사의 종단적 요소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있다. 「찰주본기」의 내용을 감안할 때, 탑의 개건은 황룡사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목탑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과 이를 이용하려는 경문왕의 정치 이념의 연결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7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6년 정월.

7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6년 10월 “伊滄允興與弟叔興季興謀逆 事發覺 走岱山郡 王命追捕斬之 夷一族”

75) 李基東, 1980,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30쪽. 여기서는 윤흥 형제를 均貞의 방계로 보고 있다.

76) 박남수, 2012, 앞의 논문, 56~57쪽.

이 적절할 듯하다. 한편 윤흥을 김양의 서형으로 보는 것은 「성주사비」에 그가 등장하고, 동 비문에 보이는 伊滄庶兄을 연결한 것으로서 특별한 근거는 없다. “宜和夫人 是伊滄允興”이라는 구문은 의화부인의 출신을 밝히는 형태이므로 윤흥은 의화부인의 아버지로 보아야 하며, 의화부인은 夫人이 통상 왕비를 가리킨다는 점에 비추어 문성왕의 첫 왕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⁷⁷⁾

윤흥이 문성왕의 첫 왕비의 아버지라면 그는 문성왕의 최측근인 셈이다. 현안왕과 김양이 양분하고 있던 권력 구조에서 윤흥의 지분은 제한적이였겠지만, 김양과 현안왕이 차례로 사망하면서 문성왕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을 것이다. 재위 중반부터 경문왕이 현안왕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정통성을 확립해 나가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문왕 8년 정월에는 伊滄 金銳 등이 역시 모반했다가 복주되었다.⁷⁸⁾ 김예는 문성왕 17년(855)에 작성된 「昌林寺無垢淨光塔誌」에 문성왕의 從弟로 등장한다. 이 탑지에는 從叔 金繼宗과 金勳榮도 보인다. 이 탑은 문성왕의 발원으로 건립된 것이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성왕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예는 탑지 작성 당시 관등이 舍知에 불과함에도 奉敎宣修造塔使를 담당했고, 13년이 지난 모반 시점에 이미 伊滄에 올라 있었다. 반면 김계종은 현강왕 5년(879)에 건립된 「鳳巖寺智證大師碑」에 그보다 낮은 韓榮(大阿滄)으로 나오고 있어 그 지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김예는 문성왕과 비교적 가까운 혈족인 반면, 김계종은 그보다 방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⁷⁹⁾

77) 윤경진, 2015②, 앞의 논문, 28쪽, 주 83). 아울러 伊滄庶兄은 김양의 從父兄으로서 성주사 창건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金昕으로 보았다.

78)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8년 정월 “伊滄金銳金鉉等謀叛 伏誅”

79) 金繼宗에 대해서는 헌정계의 인물로 보는 견해(全基雄, 1989,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 27쪽)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그는 헌정의 또다른 아들이 된다. 그러나 그가 문성왕 17년에 行武州長史를 지내고 있어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안왕대까지 활동한 것을 볼 때, 예영의 큰아들로 생각되는 憲貞의 아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당초 均정과 제룡이 왕위를 놓고 대립한 것은 長子가 없을 때 次子와 長孫 중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가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예영에게 헌정과

한편 제릉과 균정의 왕위쟁탈전 당시 우징은 균정의 妹壻(姪) 禮徵⁸⁰⁾ 및 金陽과 함께 균정을 받들었다. 예징은 우징이 궁복에게 의탁하자 뒤따라 청해진에 들어갔으며,⁸¹⁾ 김양이 민애왕 제거에 성공한 후 宮禁을 정돈하여 신무왕을 맞이하기도 하였다.⁸²⁾

예징은 문성왕 2년(840)에 上大等이 되었는데, 뒤에 헌안왕이 되는 誼靖은 이 때 侍中이 되었고, 예징과 함께 청해진에 들어간 良順은 伊滄이 되었다.⁸³⁾ 곧 당시 조치는 문성왕이 자신의 최측근을 정계의 전면배치하는 인사 조치였던 것이다. 여기서 예징이 신무왕의 동생인 의정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성왕의 태자가 동왕 9년(847)에 사망하면서⁸⁴⁾ 후계 구도에 차질이 생겼다. 그런데 당시 상대등으로서 새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었던 禮徵은 동왕 11년(849)에 사망하였고, 의정이 대신 상대등에 올랐다.⁸⁵⁾ 의정은 이를 발판으로 문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⁸⁶⁾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징의 아들이 바로 金銳였다는 추정을 얻을 수 있다.⁸⁷⁾ 그는 예징이 사망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그 뒤를 이어

균정 외에 또다른 아들이 있었고 김계종은 그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80) 禮徵은 신라본기 기사에는 균정의 姪, 또는 妹壻로 나오며, 金陽 열전에는 妹壻로 되어 있다.

8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僖康王 2년 6월 “均徵妹壻阿滄禮徵 與阿滄良順 亡投於祐徵”

均徵은 均貞의 오기이거나 異稱으로 이해된다.

8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神武王 원년 “禮徵等既清宮禁 備禮迎之即位”

8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2년 정월 “以禮徵爲上大等 義琮爲侍中 良順爲伊滄”

8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14년 11월 “王太子卒”

85)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11년 정월 “上大等禮徵卒 伊滄義正爲上大等”

86) 義正과 誼靖(憲安王)은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강재광, 2011, 『문성왕대의 정국과 창립사무구정탑원기 조성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101쪽, 주 10)의 내용 참조.

87) 김예를 신무왕의 아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강재광, 2011, 앞의 논문, 125쪽), 형제, 또는 이복형제를 從弟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 김예를 예징의 아들로 보면 그는 문성왕의 고모의 아들이 되어 從弟로 표현될 수 있다.

즉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예징이 사망하고 대신 상대등이 된 의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문성왕은 거듭된 변란을 극복하면서 나이가 젊고 혈연상 거리가 있는 김예보다는 나이가 들고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숙부를 선택하였다. 이후 정계의 최고위로 성장한 김예는 현안왕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왕위 계승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현안왕이 사위 응림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에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⁸⁸⁾ 이런 상황에서 경문왕이 현안왕과의 擬制的 父子 관계를 끊고 生父를 追尊한 것을 계기로 반역을 피하게 되었건 것이다.

이렇게 연이은 모반은 경문왕이 추진하던 통합 정책을 흔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로서는 다시금 통합의 이념을 추스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황룡사 탑에 벼락이 떨어진 것을 빌미로 문성왕대 이래 중단되어 있던 탑의 개건을 재개한 것이다.⁸⁹⁾ 결국 경문왕은 동왕 11년(849) 정월 황룡사 탑의 改造를 명하였고,⁹⁰⁾ 3년 가까운 공역을 거쳐 동왕 13년(851) 9월 탑이 완성되었다.⁹¹⁾

이 때 완공에 앞서 찰주 아래에 있던 기존의 사리함을 확인하고 사리를 추가로 넣으면서 탑을 처음 세운 연원과 改作하게 된 이유를 적어 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찰주본기」이다. 여기서 탑의 개건은 “廢舊造新”으로 표현되고 있어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새로 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88) 이 점에서 김예는 「승복사비」에 보이는 왕위계승분쟁[集鳥之苑]의 한 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89) 김창겸은 경문왕대에 진행된 일련의 영건 사업을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연계하여 이해하면서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을 윤흥의 모반과 연결하였다(김창겸, 1988, 앞의 논문, 61~64쪽). 모반처럼 정치적 과장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과장을 완화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활용하는 맥락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반과 공역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영건 대상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90)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11년 정월 “王命有司 改造皇龍寺塔”

91)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13년 9월 “皇龍寺塔成 九層 高二十二丈” 「찰주본기」에는 경문왕 11년 8월에 “廢舊造新”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7월 9층의 공역이 끝났으며, 동년 11월에 사리를 다시 안치하면서 명문을 새긴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기록은 공역을 위한 명령과 최종 완공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허인욱, 2014, 앞의 논문, 15~16쪽).

것은 당시 공역에서 사리함까지 확인한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명문 내용은 처음 탑의 건립 목적이 海東諸國의 항복으로 표상되는 신라 중심의 천하 구성을 염원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그 결과를 “과연 삼한을 합하여 □□를 이루니 군신의 안락함에 지금까지 이에 힘입고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곧 탑의 개건을 통해 신라의 ‘통일’을 ‘一統三韓’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현 사회에 통합 이념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에 힘입고 있다”고 한 것에서 탑의 개건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경문왕의 황룡사구층목탑 개건은 하대의 왕위 계승 분쟁을 종식하고 체제의 통합을 천명하는 이념적 사업인 것이며,⁹²⁾ 「찰주본기」의 내용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서 확립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신라 하대 경문왕의 통합 정책과 그와 연계된 이념으로서 三韓一統意識의 확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9세기 중반 체제 통합의 이념적 방안으로 출현한 삼한일통의식이 경문왕의 정책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음을 논하고, 그 표현으로서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에 주목한 것이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문왕은 희강왕의 손자이며 현안왕의 사위로서 그의 즉위는 흥덕왕 사후 벌어진 균정계와 현정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여 예영계의 통합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었다. 경문왕은 이를 바탕으로 인검계의 마지막 국왕인 민애왕을 복권시킴으로써 범원성왕계의 통합까지 이끌어내었다.

우징(신무왕)은 김명(민애왕)이 희강왕을 자결시키고 왕위를 차지한 것

92) 경문왕대의 정치적 상황 및 「찰주본기」의 내용을 통해 황룡사구층목탑 개건이 전국가적인 통합을 도모한 것임은 관련 연구에서 지적되는 바이다(이기봉, 2012, 앞의 논문, 11쪽). 다만 기존 연구들이 「찰주본기」 내용을 탑을 처음 건립할 때의 인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본고는 그것이 경문왕대에 새롭게 해석된 것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에 대해 “弑君自立”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장보고의 군사력을 빌어 민애왕을 타도한 뒤 왕위를 차지하였고, 민애왕은 사후 국왕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경문왕은 즉위 후 민애왕의 追崇을 행하여 그를 국왕으로 복위시켰고, 그의 추승을 확인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탑을 건립하였다.

경문왕의 통합 행보는 무열왕계로 확대되었다. 경문왕 4년(864) 感恩寺 행차와 東海 望祭는 그 표현이었다. 감은사는 문무왕의 원찰로 건립된 곳으로, 대왕암 전승이나 만파식적 설화와 연결되어 문무왕의 공업을 표상하였다. 혜공왕 때에는 무열왕과 함께 문무왕을 不遷之主로 삼았고, 감은사에 행차하여 망제를 지냄으로써 문무왕의 공업을 부각시켰다.

경문왕은 이러한 사적을 재현함으로써 문무왕을 무열왕계를 아우르는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앞서 신무-문성왕대 金陽의 활동을 통해 무열왕계가 복권된 데 이어 문무왕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공업으로 귀결되는 ‘一統三韓’이 체제 이념으로 확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경문왕은 즉위 후 원성왕의 원찰인 鶴寺(崇福寺)를 중건하였다. 이것은 범원성왕계를 아우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원성왕에게 烈祖 廟號를 추상한 것이었다. 열조는 중흥주에게 올리는 묘호로 불천지주였다.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로서 그의 지명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즉위 초에는 헌안왕과의 관계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동왕 5년(865) 당의 책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듬해 생부인 啓明을 대왕으로 추존하고 태자를 책봉하였다. 이것은 헌안왕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왕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때 계명을 부모함에 따라 원성왕이 조천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하대 왕실의 출발인 원성왕을 조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열조 묘호를 올림으로써 불천지주로 삼았다. 이것은 원성왕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그 후계자로서 경문왕의 위상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경문왕은 범원성왕계를 아우르면서 대통합의 정치적 지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이루어진 무열왕계 포용과 연결되면서 이념적 측면에서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을 추동하였다. 경문왕 11년(871)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은 그 표현이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선덕여왕의 혈통적 신성성과 九韓 來貢의 천하관을

표방한 것으로, 백제의 공격으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고 선덕여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념적 조치였다. 그런데 경문왕대 탑의 개건에서는 이를 삼한일통의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찰주본기」에는 탑의 건립의 기대 효과로서 海東諸國의 來降과 실제 결과로서 “果合三韓”이 제시되어 있다. 海東은 중국과 구별되는 나뭇의 천하를 설정하는 것으로, 중국을 고려하지 않는 구한의 천하관을 대체한 것이었다. 그리고 탑의 건립에 따른 결과는 ‘一統三韓’으로 확정되었다. 앞서 문성왕대 「성주사비」를 통해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이 확인되는 데 이어 「찰주본기」는 그 내용과 의미가 확정된 양상을 보여준다.

해동제국의 항복은 신라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천하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諸國의 동질성은 상정되지 않는다. 반면 삼한일통의식은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삼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로 지배-복속의 구조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동이 삼국을 거쳐 신라로 정리되고 그 신라가 삼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해동의 천하관과 삼한일통의식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 이것은 삼한일통의식의 확립을 반영한다.

이러한 삼한일통의식의 확립 과정은 저간의 정치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은 문성왕 초년부터 도모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기근과 역질, 모반 등으로 중단되었다. 경문왕의 개건 조치는 동왕 8년(868)에 탑에 벼락이 떨어진 것을 계기로 삼고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정계의 통합에 있었다.

경문왕의 생부 추존은 현안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명분을 파기한 것으로, 균정계의 정치적 배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이는 연이은 모반으로 나타났다. 경문왕 5년(865) 모반한 允興은 문성왕 元妃의 아버지로 추정되며, 김양과 현안왕 사후 문성왕 세력의 실질적인 중심이었다.

경문왕 8년(868)에 모반한 金鏡는 균정의 妹壻(姪)인 예징의 아들로 추정된다. 예징은 신무왕 즉위의 공신으로 문성왕 9년(847) 태자 사망 후 上大等으로 후계자 위치에 있었으나 동왕 11년(849) 사망하였다. 그의 정치적 지분은 김예로 승계되었으나 문성왕은 정계 안정을 위해 숙부 諡靖(현안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현안왕 또한 사위 膺廉을 선택하자 이에 불만을 품다가 모반을 꾀하였다.

연이은 모반은 경문왕이 추진하던 통합 정책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통합의 이념을 천명하는 방안으로 문성왕대 이래 중단되어 있던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을 재개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의 '통일'을 '一統三韓'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현 사회에 통합 이념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황룡사구층목탑의 개건은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이 체제 이념으로서 확립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三韓一統意識, 景文王, 元聖王, 烈祖, 皇龍寺九層木塔

논문투고일 : 2015. 10. 21

논문심사시작일 : 2015. 10. 26

논문게재확정일 : 2015. 11. 07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孝宗實錄』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 논문

Vladimir Tikhonov, 1996, 「景文王의 儒·佛·仙 融化政策」, 『아시아문화』 12.

강재광, 2011, 「문성왕대의 정국과 창림사무구정탑원기 조성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金暲綠, 2006, 「朝鮮初期 宗系辨誣의 展開樣相과 對明關係」, 『國史館論叢』 108.

金相鉉, 1992, 「黃龍寺九層塔考」, 『張忠植華甲紀念論叢(역사학편)』, 논총간행위원회.

김지은, 2002, 「신라 경문왕의 왕권강화정책」, 『慶州史學』 21.

金昌謙, 1988, 「新羅景文王代 ‘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 : 王權強化策과 관련하여」, 『閔丙河停年紀念論叢』, 논총간행위원회.

_____, 2009,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이기동정년기념논총(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출판사.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李文基,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문경현, 2000, 「神武王의 등장과 金昕」, 『趙恒來停年紀念論叢』 아세아문화사.

박남수, 2012,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史學研究』 108.

박순교, 2002, 「皇龍寺九層塔의 歷史的 虛實」, 『清溪史學』 16·17.

송은일, 2004, 「新羅下代 景文王系의 成立」, 『全南史學』 22.

申東河, 2001, 「新羅佛國寺 思想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2.

윤경진, 2013,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_____, 2014,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_____, 2015,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 일 배경」, 『史林』 52.
- _____, 2015, 「신라 神武-文聖王代の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新羅文化』 46.
- 이기동,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확장 : 중세적 측근정치의 지향」, 『歷史學報』 77.
- _____, 1980,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 이기봉, 2012, 「신라 경문왕대의 정국운영과 災異」, 『新羅文化』 39.
- 張日圭, 2006, 「승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 192.
- 全基雄, 1989,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
- 전덕재, 2011, 「신라 경문왕·현강왕대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추진과 그 한계」, 『東洋學』 50.
- 田美姬, 1989, 「新羅 景文王·憲康王代の '能官人' 登用政策과 國學」, 『東亞研究』 17.
- 丁元卿, 1983, 「新羅 景文王代の 願塔建立」, 『부산직할시 시립박물관연보』 5.
- 曹凡煥, 1999,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 蔡美夏, 2000,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 _____, 2008, 「오묘제와 하대 왕권」, 『신라의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崔柄憲, 1978,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 3.
- 최희준, 2011,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처」, 『韓國學論叢』 36.
- 秋明燁,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 허인욱, 2014,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在 검토」, 『史學研究』 113.
- 황선영, 2006, 「新羅下代 景文王家의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新羅文化』 27.
- 黃壽永, 1969,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

Shilla King Gyeongmun-wang(景文王)'s Policy of Unity, and Rebuilding the Nine-storied Wooden Pagoda of the *Hwang'ryong-sa* temple(皇龍寺九層木塔)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in Ninth Century -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the Shilla people's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was developed into a state ideology through king *Gyeongmun-wang*'s Unifying policy. *Gyeongmun-wang* was the son-in-law of king Heon'an-wang(憲安王), who actually appointed *Gyeongmun* to the reign, and after he was enthroned, *Gyeongmun* reinstated the status and honor of former king *Min'ae-wang*, in order to unify the descendants of late king *Weonseong-wang*(元聖王), while also trying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Mu'yeol-wang*(武烈王) descendants by arranging a trip to the Gam'eun-sa(感恩寺) monastery. *Gyeongmun-wang* also posthumously entitled his biological father as Grand King(大王), and also presented *Weonseong-wang* with an ancestral tablet title “*Yedl-jö*”(烈祖). The action was also part of his effort to establish himself as the legitimate successor of *Weonseong-wang*.

This, however, was a blatant breach of the notion that *Gyeongmun* had been enthroned as the de-facto ‘son’ of Heon'an-wang, and ensued was a series of insurrections. So, with the renovation of the

Nine-storied Wooden pagoda of the *Hwang'ryong-sa* temple(皇龍寺九層木塔), he propagated *Sh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dynasties as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s(一統三韓),' in order to use it as a platform for future social unity. This shows us that the very notion was being elevated and thus evolving into a state ideology.

Key Words : the Notion of "Three Hans becoming one" (三韓一統意識), *Gyeongmun-wang*(景文王), *Weonseong-wang*(元聖王), *Yedl-jo*(烈祖), the Nine-storied Wooden Pagoda of the *Hwang'ryong-sa* temple(皇龍寺九層木塔)